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국제 콩쿠르 우승

“결과에 연연하지 않은 것이 우승의 이유 같다”

“항상 그렇듯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다른 콩쿠르처럼 목욕히 준비했고,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죠.”

지난 5일 2016 샌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25)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은 것이 우승의 이유 같다”며 “뜻밖의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 즐거워했다.

지난해 피아니스트 조성진(22)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콩쿠르가 클래식 음악계 대다수의 관심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지만, 장유진은 초연해보였다.

오케스트라 협연이 많은 콩쿠르여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출전했다.

준결선에서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최종 결선에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와 스트라빈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를 연주했는데, 이 경연이 연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협연은 흔하지 않은 기회예요. 라이브 연주로 듣기에 명곡이죠. 협주곡이 많다 보

니 체력을 안배하는 법에 대해 배웠죠.”

포레에 비해 콩쿠르 출전이 잦지 않다. 2014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5위 입상과 특별상, 2013년 일본 무네츠쿠 콩쿠르 우승, 2009년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2위와 청중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그녀는 당분간 콩쿠르 출전보다는 미국과 일본에서 협연과 리사이틀에 주력할 예정이다.

“좋은 연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콩쿠르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번 ‘샌다이 콩쿠르’처럼 우승뿐 아니라 연주력에도 도움이 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고민을 해야겠죠. 콩쿠르에만 매달리면 불행할 것 같아요.”

클라라 주미 강, 신지아를 잇는 ‘차세대 미너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힌다. 2001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장유진은 김남운 사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을 수석 졸업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미리암 프리드를

사사로 석사와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후 현재 동 음악원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까르르 웃는 여고생처럼 밝은 에너지가 넘친다. 바르토크, 슈니테케 등 등 다소 낯설고 어려운 작곡가의 곡도 장유진만 만나면 은화해지는 이유다.

“연주 때는 열심히 하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막 깔깔 웃어요.” 밝은 성격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 “콩쿠르에서 1등을 해도, 떨어져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샌다이 콩쿠르 우승 후 첫 연주를 선보인다. 오는 23일 광화문 금호아트홀에서 ‘슬라빅’을 주제로 연주회를 펼치는 ‘칼라치 스트링 파르티트’으로 참여한다. 장유진과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비올리니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심준호로 결성된 팀이다.

연주력이 뛰어나고 명민하지만 까다롭지 않은 연주자들이 모인, 화기애애한 파르티트으로 유명하다. “결국 연주자는 음악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악장이 될거야’ 등 꿈이 많았는데, 지금은 청중에게 음악을 정확하게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싶어요.”

/이성주 기자



납량특집 이색공연 ‘장화, 홍련’

진주문화재단이 기획하는 이색공연이 있는 금요일 밤에는 <장화홍련>으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은 차세대 명창 이희정이 연출을 맡은 납량특집으로 오는 24일 오후 8시 창작지원센터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무대는 이야기기 있는 소리극으로 판소리 가 가지고 있는 사설의 이면을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1장 어머니를 잃은 슬픔, 2장 무서운 홍계, 3장 장화의 죽음, 4장 홍련의 죽음, 5장 귀신 등장 왔오, 6장 최후의 심판 등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이 작품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다.

극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무너져 가는 가정의 문제점들을 작품 속 캐릭터들이 가진 각자의 아픔으로 표현하고 풀어낸다.

이날 공연은 각본에서부터 작창까지 소리꾼 이희정의 창작작품으로 진행되며, 이희정 밴드의 베이스 기타 이영화와 재즈피아니스트 최은, 진주 소리문화관 상설 공연단의 소리꽃 단원, 대금 연주자 권민환과 가야금 연주자 박승희가 함께 출연한다.

공연문의는 홈페이지 www.dongmunst.com이나 287-2012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의 우수한 명품 공예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

목가구 공예 서랍장·2단 서랍장 사방탁자 2점 등 총 4점

전주의 우수한 명품 공예품들이 아셈문화재단의 주최로 열리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된다.

한국전통문화재단은 24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제7회 아셈문화재단’에 전당 소장하고 있는 천년전주 명품은 브랜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한국전통문화재단에게 소장작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작품들은 국내 주요 공예품들과 함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로비에 전시된다.

이는 전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장인의 손끝으로 모던하게 풀어낸 작품으로 목가구 공예 전통 짜맞춤 가구제작 전수자 권원덕 작가와 디자이너 김백선씨가 협업해

만든 서랍장 1점, 소목장 전수자 김원규씨와 김백선씨의 협업작인 2단 서랍장 1점, 소목장 조석진 장인과 진효승 디자이너가 제작한 사방탁자 2점 등 총 4점이다.

전시관계자는 전통 공예 기법인 ‘짜맞춤’과 디자인의 합작품,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못과 톱질 위주 작품에 익숙한 서방국가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했다.

“문화와 창조경제를 주제로 각각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아셈문화재단의 전시를 계기로 세계 속에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석정 이정직의 학문과 예술세계

김제시, 학술심포지엄 개최

김제시(시장 이정직)는 22일 석정 이정직의 다양한 학문과 폭넓은 예술세계를 공유하고자 『석정 이정직의 학문과 예술세계』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제시가 주최하고 국립전주박물관, 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이 주관하였다.

석정이정직 문중에서 후원하여 석정 선생이 남긴 수많은 글과 그림들이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념관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주시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석정 이정직 선생은 해학 이기선생, 매천 황현선생과 더불어 호남의 삼절이라 일컬어졌던 분으로, 1841년 김제시 백산면에서 태어나 어릴적부터 다양한 학문을 두루 익혔고 27세가 되던 해 중국 연경에 가는 사신단에 동행하

여 동·서양의 학문을 접하게 되어 동서사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었다.

그리하여 19세기 중엽 우리나라가 정치·문화적으로 어지러운 시기에 전통적인 도학을 존중하면서도 과학과 더불어 실용화 될 수 있는 실학을 펼쳤다.

석정선생은 문예와 서화에 이르기까지 궁극의 경지에 올라 당대에도 으뜸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거려야 할 큰 인물이자 학문과 예술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석정 이정직선생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 깊고 앞으로도 석정 이정직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 드림 열린음악회 선율에 빠지다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드림열린음악회가 오는 24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실내체육관에서 두 번째 음악 여행을 시작한다.

이번 드림열린음악회에는 전북도립국악원관소리 교수로 재직 중인 국악인 김연씨가 출연해 ‘쑈대머리’와 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는 대목을 들려줄 계획이다. 김연씨는 서울전통공연예술대회 종합 최우수상, 임방울 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내 대표적 국악인으로 공연의 수준을 한껏 높여줄 걸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가수 박정식씨가 출연해 멋진진영, 영원한 40대, 천년바위 메들리로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김재원 지휘자의 지휘아래 드림합모니 오케스트라는 갈타이케의 ‘옛 친구 행진곡’, 베토벤 교향곡 5번 4악장 발레곡 등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순창군여성합창단이 출연해 ‘엄마야 누나야, 삼삼이, 사랑으로 등을 돌려준다’.

설주원 문화관광과장은 “드림열린 음악회가 회가 갈수록 인기가 더해가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음악을 감상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 <2016년 6월 23일>

<p>▷쥐띠 46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60년생: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지 말라. 7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니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할 일에만 전념하라. 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니 투자는 삼가라.</p>	<p>▷소띠 49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방치하면 나이지 않고 심해진다. 6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다. 73년생: 손이랫사람에게 배움 받은 후에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85년생: 화합하기 어려운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매사에 주의할 기를 올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62년생: 동료나 가까운 사람과 구설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긴다. 74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다. 86년생: 문서작성,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 좋은 운이다.</p>	<p>▷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으나 결과는 좋으니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63년생: 타인을 도와주면 공이 돌아온다. 75년생: 동기감으로 인해 성가신 일이 발생한다. 87년생: 다른 사람에게 의지 하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해결할 것.</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실을 맺는 운이다. 64년생: 자신보다 약한 사람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좋은 자료를 제공받는다. 76년생: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이 따를 것이다. 88년생: 지금은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가 아닌 준비하는 때.</p>	<p>▷뱀띠 53년생: 외부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나 내부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나니 주의하라. 65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화합이 필요하다. 77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뒷사람과 함께 움직여라. 89년생: 항상 잘 되고 있을 때 겸손함과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법.</p>	<p>▷말띠 54년생: 먼저 배풀면 후에 얻게 될 것이다. 대신 대가를 바라는 선행은 의미가 없음을 잊지 마라. 66년생: 이동 변동 변화를 가지게 되면 운이 상승하는 시기. 78년생: 유행할 일이 있으면 성성에 주의하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한다. 90년생: 침체 되어있던 운은 지나가고 활기찬 운이 도래했다.</p>	<p>▷양띠 55년생: 동기감과 함께 하면 기본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많아지는 좋은 운. 67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해가 되는 일이 없다. 79년생: 이성을 조심해야 하는 운. 관심을 표현하면 구설수가 따른다. 91년생: 기만지 계통과 세균성 장염에 주의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동성과 함께 일을 진행하기보다 이성과 함께 진행하라. 좋은 결과가 따른다. 68년생: 잠재되어 있는 운이 표출되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8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어긋나면 잠시 쉬어도 된다. 92년생: 정신적, 체력적으로 소모는 많으나 거두어들이는 결실이 적다.</p>	<p>▷닭띠 57년생: 일을 시작해야 할 좋은 것이 없는 운. 69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하니 마음을 비우고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마라. 81년생: 말을 삼가하는 것이 상책. 93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p>	<p>▷개띠 46년생: 작은 문서를 잡거나 움직이는 것은 무방하나 큰 것을 움직이면 해가 따르니 주의하라. 58년생: 재물운은 좋으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70년생: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 82년생: 외부활동에 집중하라.</p>	<p>▷돼지띠 47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근심 걱정 할 일이 생기니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라. 5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1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기에 마음을 다스릴 것. 83년생: 손이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반드시 돌려받는다.</p>